

KOBA 2018 CAMERA Review

전시회는 설령 장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것만의 묘한 매력 있다. 이번 KOBA 2018의 규모는 예년에 비해 작아졌지만, 있을 것은 모두 있는 알찬 전시회였다고 나는 평하고 싶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카메라나 장비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본인이기도 하지만, 정보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과정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다.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촬영감독들이 그러할 것이다. 스펙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카메라나 장비도 스펙이 전부 아닐 것이다.

촬영하는 사람을 위해 편리하게 만들어졌는지, 가격과 성능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는지, 사실 궁금한 것들은 너무도 많기에 본인은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용해 보고, 느끼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카메라의 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번 KOBA 2018에서는 이미지 센서 크기의 변화와 시네마 렌즈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ARRI의 ALEXA LF의 라지 포맷 센서를 비롯해서 소니 베니스의 35mm 풀 프레임 센서 탑재, 캐논 EOS C700 FF의 발표, 파나비전 카메라 등은 과거의 슈퍼 35mm 판형에 머물렀던 개념이 아닌 카메라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큰 변화의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풀 프레임, 다시 말해 35mm 센서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필자 본인이 촬영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캐논 5D Mark II가 유행하





럼 번져가기 시작해서 기존의 슈퍼 35mm보다 더 얇은 심도와 넓은 화각을 경험하고, 그 효과에 비해 너무도 가격이 착했던 것을 경험한 세대라면, 비록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눈이 빠지거나 일보 직전의 힘든 경험을 추억하고 있을 촬영감독들도 많았으리라고 본다.

35mm 풀 프레임의 얇은 심도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름카메라가 아닌, 기존의 방송용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영상미와 얇은 심도

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적은 비용으로 멋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상의 평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그러한 작은 움직임, 또는 현상들이 어찌면 현재의 풀 프레임 카메라와 그 이상의 센서 사이즈를 지원하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카메라를 탄생시켰는지도 모르겠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 HD를 넘어서 4K로 촬영할 수 있는 시대.

지금 프로 촬영감독과 아마추어 촬영감독의 경계는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들 가격이 비싼 카메라는 프로용 카메라이고, 가격이 저렴한 카메라는 인터넷 방송용 개인 촬영자들이나 아마추어들이나 사용하는 카메라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이다.



나는 “프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꼭 비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이 경계는 물론 제작비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 퀄리티를 요구하는 영상 작업에서는 고가의 카메라가 꼭 필요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도 분명 명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를 원하는 현상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촬영감독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제작비에서 장비에 책정되는 금액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저가의 카메라들 수준이 높아져서 생긴 변화이기도 하지만 카메라마다 영상 퀄리티 차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언컨대, 프로 촬영감독은 장비 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무사(武士)에게 있어서 명검(名劍)은 중요하다.

뛰어난 무사는 명검을 잘 다루어야 할 것이고.....

무디고, 보잘것없는 칼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작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프로 촬영감독이 촬영하면 빛나는 영상이 되는, 그런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영상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촬영감독들이다.

카메라가 워낙에 귀한 물건이기도 했고, 선택의 폭도 좁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카메라의 출시 주기가 생각보다 빨라진 현재,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카메라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선택장애 현상”은 카메라 구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너무 괴로운 작업이기도 하다.

본인과 같은 직장인에게는 좋은 카메라는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가의 카메라를 개인적으로 구입할 일은 전혀 없다. 하지만 눈높이만 높은 본인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카메라에도 무척 공을 들이고, 신중하게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을 한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하여 카메라를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덜컥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카메라가 출시해 버리면 정말 맨붕이 올 수밖에 없다.

내게 맨붕을 안겨준 카메라는 다름 아닌 소니의 PXW-Z280이다.



KOBA 2018, 내가 궁금한 것을 제조사에게 묻다.

올해 KOBA는 본인에게는 뜻깊은 전시회인 것이 타의에 의해서 방송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다시 방송 장비에 대한 열망을 불태운(?) 특별한 행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글을 써보자는 마음으로 몇몇 전시회에 참여한 장비사와 잠시 인터뷰도 하고 서로 짧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기도 하였던 짧았지만 길었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번 공식 일정(?)의 첫 번째는 ‘소니코리아’와의 인터뷰였다.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PXW-Z90을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개발자에게 직접 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합동 인터뷰가 아닌 개인적으로 시간을 부탁해서 인터뷰하게 되었다. 이걸 ‘방송과기술’의 취재 활동이었기에 가능했던 특별한 혜택이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방송과기술’과 ‘소니코리아’ 관계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는 바이다.

이 인터뷰는 소니코리아의 변상혁 부장과 김병철 과장, 정진영 씨의 통역과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의 인터뷰 순서와



소니 PXW-Z280 관련 엔지니어인 소니의 야마모토 칸타 씨

는 상관없이 질문의 흐름을 따라서 글을 쓰도록 하겠다.

사실 본인이 가장 궁금한 것은 HLG에 관련한 내용이었다.

소니 PXW-Z90을 사용해 HLG 촬영을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PXW-Z90을 사용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PXW-Z280의 출시 소식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4K XAVC 422 10비트 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PXW-Z90은 4K XAVC로 촬영이 되지만, 420 8비트로만 녹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 출시 예고된 PXW-FS5M2와 PXW-Z190은 4K 녹화는 420 8비트만 지원하고, 유일하게 PXW-Z280만 422 10비트를 지원해서 사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것을 얘기하였고, 사실 좀 더 고 퀄리티의 카메라를 출시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얘기했다.

소니에도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사실 무언인가의 순서에 따라서 천천히 카메라를 발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본사의 엔지니어에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는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촬영감독들을 대표해서 얘기한다는 생각으로 파나소닉과 다른, 또는 늦은 행보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소니 측의 답변은 “신제품의 기획-설계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시장의 기술 변화에 맞춰 새 기술을 신제품에 적용시키는 것은 늘 ‘Timing issue’가 되고, 대신 이러한 요구사항을 최소한도로 만족시키고자, PXW-FS5M2는 외부로 4K RAW 출력을 지원하여 4K 60 RAW, 120fps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 경우 사용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과 새로 출시되는 PXW-Z280은 4K XAVC 422 10비트를 지원하므로, 고화질의 4K 영상에 대한 사용자의 욕망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답변을 주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본인은 PXW-Z280이 가장 마음에 든다.

만일 이번에도 PXW-Z280이 없었다면...



물론 소니도 분명 시장의 흐름을 보고는 있었을 것이지만, 사실 422 10비트 녹화, 그리고 60프레임 촬영은 국내 UHD에서는 기본처럼 자리 잡고 있고, 촬영이라는 것이 고가의 카메라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저가의 카메라를 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파나소닉의 EVA10이나 GH5를 보더라도 일단 60fps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저가형 소니 카메라들은 30fps를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번 기회에 마치 하소연처럼 얘기하기도 하였다. 캐논의 VIXIA GX10 핸드캠에 대한 얘기는 차마 하지 못했다.

소니의 30프레임 정책에 대한 답변은

“다른 제조사들은 4K 60P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소니는 4K HDR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2018 FIFA 월드컵을 4K HDR로 중계한다고 발표가 되었고, 소니의 카메라들이 HDR(S-Log3와 HLG)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릇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자평한다. 지적받았던 4K 60p 캠코더들 역시 PXW-Z280을 필두로 6월 말부터 출시 예정이며, 앞으로 꾸준히 4K HDR 60p 캠코더들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본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카메라에서의 HDMI 단자를 통한 HLG 출력은 언제쯤부터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PXW-Z90을 테스트할 당시에는 아토모스 쇼군 인페리어를 통해서 HLG 출력을 하여 TV에서 HLG를 바로 구현했었는데, 쇼군 인페리어가 없는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LG OLED TV에서는 HLG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카메라에서 출력된 영상 HLG 신호 그대로 시청이 가능했으면 해서 질문을 해보았다.

소니 측의 답변은

“현재 PXW-FS5 시리즈와 PXW-Z90, Z150이 HDMI를 통한 4K HLG 출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곧 출시되는 신제품 PXW-Z280과 Z190 역시 HLG 출력을 지원하게 된다. HLG 자체가 Backward compatibility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일반 TV 수상기로도 HDR 콘텐츠를 ‘일반적으로 볼 수는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HLG이다. 바꿔 말하면 일반 TV로 HLG 영상을 볼 경우, HDR을 지원하지 않는 TV와 HDR을 지원하는 HDR 전용 TV에서 보는 것과 상당한 색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일반 TV에서 HLG 영상을 보면 어두워져 보인다) 따라서 보다 고품질의 영상 시청을 위해, 방송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송출 전 단계에서 4K HLG 영상을 HD SDR로 컨버팅 한 후 송출하게 된다. 현재 HDR TV 보급률이 아직 적기는 하나, 과거 SD-HD 전환기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HDR이 보급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런 트렌드를 볼 때 HLG 콘텐츠 역시 보편화되고, 시청자가 먼저 SDR과 HLG 영상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별도로 TV는 현재 삼성과 LG가 HLG를 지원하는 TV를 출시했다. 이 TV들에 캠코더, 예를 들면 PXW-Z90을 연결하고 TV의 화면 세팅을 HLG로 변경해 주면,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을 때 원본에 가까운 색감으로 감상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HLG로 방송을 내보냈던 SBS의 “정글의 법칙”의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송출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니에서 얘기한 4K HLG와 HD SDR로 컨버팅해서 송출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4K HLG로 시청이 불가능한 시청자들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 현실이고, 한국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 규격인 ATSC 3.0을 지원하는 TV는 2017년 3월 이후 국내에서 출시한 UHD TV에 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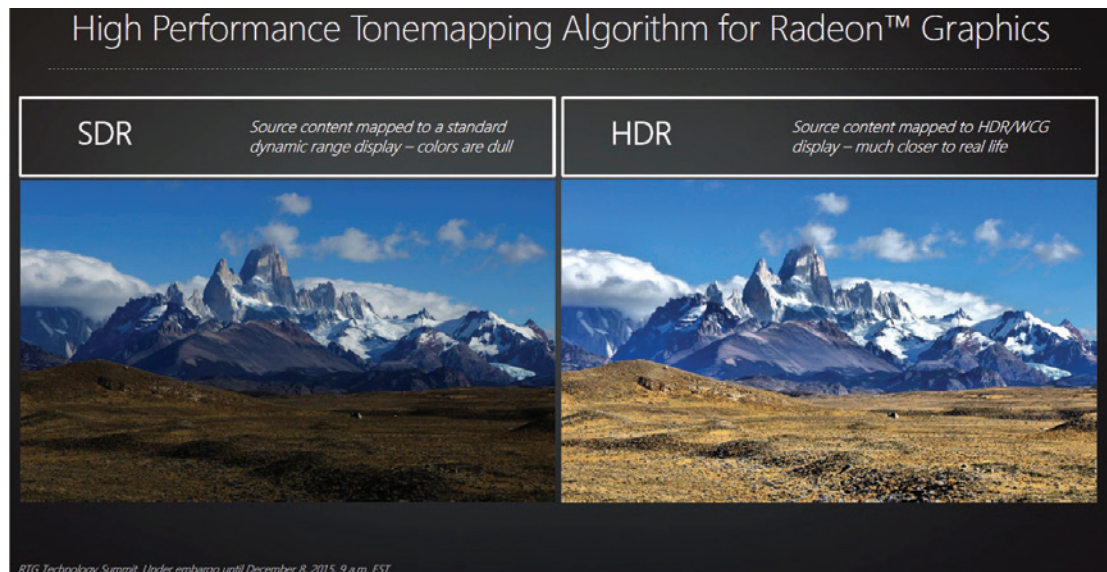


본인도 국내에서 HDR을 지원하는 UHD LED TV를 구입하였으나, LED의 문제점 때문에 좀 더 고가인 OLED TV를 구입하기 위해 직구를 선택하였고, 직구 UHD TV에는 2018년 5월 현재까지도 ATSC 3.0 수신기는 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하여 삼성이나 LG에서 판매하는 ATSC 3.0 수신기를 따로 구매해서 현재 방송 중인 UHD 방송을 실내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여 시청하고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ATSC 3.0 UHD 수신기는 HDR 방송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의 방송은 HDR 송출을 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곧 4K SDR 방식으로 시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시 본인이 시청한 4K SDR 영상은 기존에 우리가 시청하던 SDR 영상과 다르지 않았고, 본인이 생각하는 HLG에 대한 개념과 같았다.



장황하게 HLG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본인은 HLG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4K 6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출시된 상황에서도 비록 3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카메라이더라도 HLG로 촬영된 영상의 장점을 현재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본인에게, 소니를 비롯한 많은 제조사에서도 좀 더 완성도가 높은 HLG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계속 진화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ARRI 코리아 김태정 본부장

라지 포맷의 미래가 궁금하다.

기존의 렌즈와 다른 시그니처 프라임 렌즈만의 새로운 설계로 렌즈와 센서 간의 불필요한 빛을 제거하고, 제어함으로써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 그대로를 센서에 전달하기 위한 ARRI만의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었다.

대형 구경의 렌즈로 표현할 수 있는 미학적인 장점과 뛰어난 해상도 외에도 촬영감독들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 사용이 가능한 특별한 효과를 주는 액세서리도 장착이 가능해졌다. KOB를 찾은 많은 분들이 ARRI의 ALEXA LF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RRI는 그동안 ALEXA LF의 출시와 관련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새로운 포맷의 카메라와 렌즈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왔고, 이번 KOB 기간에도 컨퍼런스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지만, 본인 역시 여건이 된다면 꼭 사용해 보고 싶은 매력적인 카메라와 렌즈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KOBA 2018

ZEISS는 그동안 차근차근 새로운 시네 렌즈들을 출시해 왔고, 기존의 슈퍼 35mm 줌 렌즈를 비롯해서 35mm 풀 프레임을 지원하는 렌즈와 렌즈들이 갖고 있던 미세한 왜곡을 바로 현장에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다.

ZEISS 시네 렌즈 담당자인 일본에서 온 오구라 아라토(小倉新人, Arato Ogura) 씨와 세기P&C의 이대호 이사가 인터뷰 해주었다.



슈퍼 35mm를 지원하는 ZEISS Lightweight Zoom 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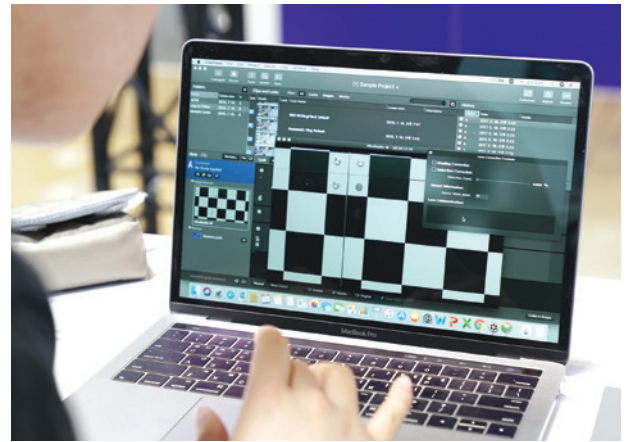
소니 베니스와 ARRI ALEXA LF까지 사용이 가능한 ZEISS Compact Zoom 풀 프레임 렌즈

ZEISS는 센서의 크기 변화가 있기 이전부터 풀 프레임을 지원하는 시네마 렌즈를 출시해 왔고, 35mm 풀 프레임 센서를 사용하는 시네마 카메라와 라지 포맷의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ZEISS 렌즈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KOBA 2018 전시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ZEISS 콤팩트 프라이임 CP.3 XD 렌즈의 시연 모습



ZEISS 렌즈는 뛰어난 해상도와 렌즈 제조사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렌즈의 정보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HD에서 4K로의 해상도 변화, 나아가 8K로의 변화까지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업계를 선도해 나가려는 ZEISS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ikegami는 스탠다드 4K 카메라와 박스형 렌즈를 조합해 전시하고 있었는데, EFP 스타일의 4K 카메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더 이상은 스탠다드 타입의 스튜디오, 중계용 카메라가 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시되어 있었다.

히타치 부스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고, 8K 카메라들은 전시되지 않았다. 한국 시장에서 8K 카메라나 장비들이 아직까지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는 8K 카메라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소니에서 출시된 8K EFP 카메라 역시 찾아볼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Canon 부스는 조금은 축소된 것 같았지만 알차게 꾸며져 있었다. 방송 장비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들이겠지만, 관람객들은 역시 모델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Grass Valley 부스에서는 카메라 시연보다는 버츄얼 스튜디오 시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양제뉴 시네마 렌즈도 전시되어 있었다.



블랙매직 디자인은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 4K의 인기로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 4K가 1대뿐이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비로써 직접 만져 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카메라가 큰 편이었다.



후지논 부스에서는 방송용 렌즈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었는데 중계와 관련된 2/3인치 센서에 맞춘 렌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E 마운트를 지원하는 MK 렌즈도 전시되고 있었다.



중국 렌즈 제조사인 NISI의 시네마 렌즈들도 눈길을 끌었는데, 저가 렌즈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NISI 렌즈의 도전이 어디까지 계속 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였다.



파나비전 렌즈는 세기 P&C 부스에 전시되었는데, 대형 판형의 센서에 걸맞은 렌즈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촬영 감독들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수입사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전시회가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쉽게 정보도 얻을 수 없는 테크노 크레인과 같은 거 대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장비는 역시 이런 KOBA 같은 큰 전시회이기 때문에 이 장비의 진화된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





카메라나 장비 외에도 국내 조명 업체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알라딘 조명은 KOBA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의 장비 사이트에 소개된 모습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기업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조명 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의 퀄리티를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뛰어난 휴대성과 전기 시설이 없는 야외에서도 배터리를 사용해서 조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장비들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

새로운 장비들을 만나는 것은 내게는 언제나 행복한 일이다. 직접 보고, 체험하는 공간인 전시회가 좀 더 알차지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족하고 도움이 되는 구조의 달라진 모습으로 내년에는 더 풍성한 모습으로 축제 같이 만나기를 바란다. 📸